

---

# 2020년 제40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9. 25. ~ 10. 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9. 26.	시청률	0.034

### 【총 평】

길따라 인문학 ‘풍경은 시, 삶은 소설이 되다’는 지역의 자연풍광과 어우러진 한국인의 스토리 인문학을 표방한 제작방향을 의미있게 살린 점이 돋보였다. 첫 회에서는 문학인 100여 명을 배출한 곳으로 산과 바다 풍경이 수려한 전남 장흥을 무대로 한 작품 세계와 작가의 문학세계, 그들의 삶, 체취를 집중 조명하는 구성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장흥출신으로 우뚝 선 이청준의 고향과 작품 무대를 비롯해 한승원, 박재구, 송기숙 작가 등 낯익은 문인들을 소개해 반가움을 더했다. 특히 이청준의 자전적 소설인 ‘눈길’의 모티브와 줄거리, 배경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눈길’에서 모자의 갈등과 이별, 사랑 등 자전적 스토리를 극화한 영상이 진한 여운으로 전달돼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길따라 인문학 ‘풍경은 시, 삶은 소설이 되다’는 기행에 문학 그리고 인문지리적인 요소를 입혀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었고 남도창 몇 자락으로 줄거리를 잡은 구성도 특징적이었다. 장흥의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온 다양한 인문작가들의 삶은 시와 소설로 다시 재탄생되었다.

또한, 지형적 특징이나 장흥문화관 등 기행적 요소를 소설가들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좋았고, ‘풍경은 시가 되고 삶은 소설이 되다’라는 부제는 프로그램의 주제를 잘 드러낸 특징적인 표현이었다. 특히, ‘지역의 자연풍경과 어우러진 한국인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기획의도를 잘 살리고, 색감을 바꾸면서 시간적 흐름과 내용을 구분한 것은 감각적인 연출이었다.

장흥은 백여 명이 넘는 문인들이 나고 자란 문학의 땅이다. 풍경은 시, 삶은 소설이 되는 인생길이 이곳에 있다. 한승원 선생의 작품들이 바다를 따라 나란히 마련되어 있고, 어느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소설가 송기숙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이청준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생가도 있다. 이렇게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장흥의 작가들이 자라나고 작품에 녹아낸 장흥의 곳곳이 여전히 남아있다.

장흥출신 문인들의 작품의 배경이 됐던 주요 명승지와 특산물을 소개한 문학기행식 포맷도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재미를 주는 요소였다. 자연이 품은 문학작품은 천관산에도 있다. 바위에 새겨진 글귀들, 그리고 장흥에서 탄생한 많은 작품을 모아두고 전시한 천관문학관이 마련되어 있다.

정남진 전망대에는 안중근 의사가 있고, 안중근 의사의 뉘를 기리는 곳이 있는데, 장흥지역의 유지가 해동사를 지어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기산마을에서는 백광홍 선생의 작품, 뒤를 이어온 후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9. 26.	시청률	0.145

### 【총 평】

우리 동네 개선문은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정읍시 취약계층 이불 세탁”과 “위약금 걱정 그만!...안전하게 즐기는 휴양림”을 방송했다.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정읍시 취약계층 이불 세탁”은 소소한 일상의 개선을 보여준 아이템으로 기획 구성이 빛났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노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 사업을 통해 지자체 거주 환경 개선과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 사업’은 이불빨래를 하지 못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불세탁 및 건조를 해드리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위약금 걱정 그만!...안전하게 즐기는 휴양림”은 코로나19 특수상황과 자연휴양림 취소로 인한 위약금 문제를 다뤄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정읍시의 ‘찾아가는 빨래방’과 산림청의 ‘위약금 면제’ 아이템이 소개됐는데 우리 일상과 밀접한 일이어서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년층 비율부터 그래프로 분석하고 시작해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빨래방 서비스 외에도 독거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어 정읍시의 노인 복지 서비스가 돋보였다.

다른 지자체에도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많을 것 같은데 빨래방 서비스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흥미롭게 시청했다.

‘위약금 걱정 그만!...안전하게 즐기는 휴양림’은 코로나19로 많은 여행자들이 숙소 예약을 취소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 공감이 많이 갔다. 또, 실제 사례자가 등장해서 위약금 문제를 정면으로 대두시켰고 바로 이어 숙박형 휴양림의 기존 위약금 내역을 정리하여 이해를 도왔다. 이 밖에 비슷한 위약금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체육, 관광 시설에도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어서 훨씬 다채로웠다. 특수한 상황을 맞아 위약금 전액 면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국립자연휴양림의 배려가 돋보였다.

#### ■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정읍시 취약계층 이불 세탁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8%로 세계 평균 9%보다 훨씬 높은 현실에서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빨래가 큰일이면서 아쉬운 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 ■ 위약금 걱정 그만!...안전하게 즐기는 휴양림

산림청이 코로나와 기상악화 등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다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서 공감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9. 27.	시청률	0.000

### 【총 평】

‘마음방역, 코로나 우울을 이겨내다!’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시청자의 심경을 대변할 만한 상황을 잘 소개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빼앗긴 우리 이웃들을 얘기를 실감나게 담아 공감할 수 있었고 우울증을 겪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사례와 우울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방법도 소개해 주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까지 희망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평범한 직장인 강신완씨의 일상속으로 들어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시선을 압도했다. 한 가정의 가장인 강신완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감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해서 다룬 점이 좋았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고 이러한 상황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대목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마스크 착용 여부 때문에 벌어진 폭력 사태 등을 들면서 코로나 앵그리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나 재유행이 본격화된 8월 초와 말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부분도 아주 공감을 샀다.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점차 분노와 공포심 수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충북에 살고 있는 이복희 할머니는 최근 지인들과의 만남이 없어 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급 받은 콩나물을 기르면서 활력을 찾았다.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이것으로 우울감을 극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무척 공감되었고 하루 다섯 번씩 콩나물 시루를 들여다보면서 애정을 쏟는 모습이 뭔가 몽클한 감정까지 느끼게 해주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재훈씨도 많은 동료들이 재택근무중이라 텅 빈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명상을 하면서 한층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밝히 호기심을 자극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10~20%는 고위험군으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란다 음악회나 각종 챌린지, 주민간의 연대활동 등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PHQ검사에서 일정 수치 이상을 기록한 사람들은 주민센터 심리상담요원과 연계되어 심리 치료를 받는 프로그램도 소개해서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잘 부각되었다. 특히 코로나블루 심리지원단 출범 소식과 함께 실제 90세의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노인을 살뜰히 챙기고 심리 상담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9. 27.	시청률	0.078

### 【총 평】

‘전통식초계 1인자의 시골살이’는 전통방식의 우리 식초 만들기에 정성을 쏟아 매출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귀농 16년 차 50대 초반의 중년 귀농인의 성공사례를 통해 전통식초 만들기 과정과 장인정신을 부각시켜 귀농 창업 희망자들에게 비결을 전수했다.

전통식초를 만드는 독특한 기술비결, 느낌과 기다림에 대한 식초 장인의 철학 등을 잘 그려냈고, 매출이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는 점을 강조해 왜, 어떻게, 고소득을 올리게 됐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했다. 특히, 귀농인의 성공비결은 전통방식의 식초 생산과 끊임없는 연구자세, 초창기 어려움 극복, 옛집을 공장으로 활용하고 가족 중심 운영으로 투자비용과 생산 비용을 낮춘데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전통식초계 1인자의 시골살이’라는 부제로 경북 예천군으로 귀촌하여 전통방식의 식초를 만드는 명인인 한상준씨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처음 귀농했을 때에는 돈도 없어, 어머니가 객지에 나가 비어있는 옛날 집을 개조하여 식초공장으로 꾸미고 숙식하며 시작했는데, 유년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과 고생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식초숙성장 및 발효장, 과일식초 및 곡물식초 등의 제조내용을 기반으로 고생한 이야기부터 주인공의 목표까지 전해주었다. 어떻게 전통방식으로 식초를 생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누룩 만들기, 초산 발효, 숙성하기, 온도 습도 조절 과정 등을 상세히 담아내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숨 쉬는 향아리를 활용해 식초를 발효시켜 갓 발효된 식초는 1년 이상 식초작업장의 땅에 파묻혀 숙성한다. 전통방식을 따라 그늘진 땅 속에 묻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주둥이 입구까지 향아리를 덜 묻게 되면 해당 향아리 전체적으로 온도편차가 생긴다. 식초를 다 퍼내면 뚜껑을 열고 자연적으로 증발되도록 기다린다. 그리고 새로운 식초가 오기 전 다시 세척을 한다. 땅속에 묻힌 향아리를 관리하는 것은 많은 품이 들지만 좋은 식초를 위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식초가 되기 위해 석 달의 발효와 1년 이상의 숙성을 거쳐 식초에서 신맛이 나게 된다.

건강과 맛을 살리는 식초 만들기과 식초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잘 그려냈고, 식초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만드는 것이라며 식초를 만들려면 발효와 숙성기간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면 느리게 사는 지혜를 일깨운 식초 장인의 생활철학도 큰 울림을 선사했다. 또, 어머니에 대한 효심, 애견과 들녘을 산책하는 모습, 형제가 작업을 하는 모습 등이 전원풍경으로 여운을 남겼다. 주인공은 우리나라 식문화 특징 중 하나가 장과 식초의 결합이라며, 식초는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야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연구를 한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20. 9. 29.	시청률	0.043

### 【총 평】

생방송 대한민국은 매거진 형태의 뉴스쇼로 속보성 뉴스 뿐 만아니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금이나 일자리 등의 정보와 산업재해에 대한 심층 뉴스, 해외 핫뉴스까지 편집되고 있어서 평일 오전 뉴스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이 있어 보였다.

주요뉴스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와 전월세전환율 2.5% 본격 적용, 한국판 뉴딜펀드 등을 다루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지급 실태와 외국인 투자 기업, 농축산물 선물 액수 확대에 관해 먼저 팩트를 체크하고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과 화상 연결을 통해 다루었다. 이 밖에 브리핑 타임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리핑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소개했다. 화중진담은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을 만나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 ■ 신규확진 38명..."대규모 집회 철회해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세를 정리하고 연휴 귀성과 대규모 집회 등을 예로 들며 재확산의 위험요소를 잘 짚어주었다. 전반적으로 확진자수는 줄었지만 진단검사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요소 등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어 좋았다.

#### ■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 본격 적용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정 총리, 오늘 '코로나19 개발재원 국제회의' 연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75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코로나19 시대의 개발재원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연설한다. 정 총리는 화상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방안으로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공적개발원조 확대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녹색 사회전환과 사회안전망강화 계획도 설명한다.

#### ■ 한국판 뉴딜펀드,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투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관련 디지털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의 분야별 투자 설명회를 열고, 운용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설명이 곧 있을 계획임을 밝혀 관심과 기대를 주목시켰다.